

아버지와 4·3, 그리고 기억 투쟁

제주 CBS

고상현 기자



4·3 희생자 수백 명이 현재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아버지는 한 번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얘기해주신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4·3 연좌제 피해자다. 아버지의 피해 사실은 우연히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들었다. 2010년 대학교 3학년 때 일이다.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고등학교 친구분을 만났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아버지 친구분이 얘기를 꺼냈다. “네 아버지 정수는 말이야.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밖에 할 수 없었어. 공부가 전부였지. 학비 들 걱정이 없는 육군사관학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어. 4·3 때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무장대로 몰려 죽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그 이후로 정수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 3년을 폐인처럼 지냈어. 4·3이 뭔지.”

나는 그때 처음 4·3에 대해 알았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는데, 왜 몰랐을까.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원망스러웠다. 어머니도 간접적으로만 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얘기해줄 뿐이었다. “네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 육사 떨어지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았어.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지 어머니 말씀을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생의 말씀을 듣고 왜 아버지가 소중한 젊음을 그렇게 허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4·3은

아버지 자신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국가에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4·3은 그저 빨갱이 폭동이었으니깐. 그저 운명을 잘못 만났다고, 재수가 없었다고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의지하지 않으셨을까.

4·3은 1940년대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군인과 경찰이 무장대를 진압한다며 도민 삼만여 명을 학살했다. 지금은 관광지로 거듭난 제주도 곳곳이 학살 터다. 함덕해수욕장, 성산일출봉, 표선해수욕장, 정방폭포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관광지 대부분에서 학살이 이뤄졌다. 4·3이 벌어진 지 71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4·3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른다. 4·3 직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4·3의 기억은 은폐되고 왜곡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아버지 친구분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후에 알았을 거다. 오랜 세월 4·3의 기억은 묻히면서 제주도는 관광지로 변해갔다. 집단 학살 터인 해변마다 유명 리조트가 들어서고, 군경을 피해 도민들이 도망다니던 중산간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4·3의 기억과 흔적은 사라지고 있다.



4·3 당시 악명 높았던 서북청년단 사무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4·3, 기억과 추억 사이’라는 기획이다. 올해 삼월부터 매주 연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광지로 변해버린 학살 터 여덟 곳을 다녀왔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녔다. 장소마다 사람들의 피해 내용은 달랐다. 그만큼 4·3이 피해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방식도 달랐다. 취재 내내 아버지가 생각났다. 이들 모두 4·3은 오랜 세월 금기였고, 속으로만 삭이고 있었다. “사니깐 마지못해서 살았다”라고 한 희생자 유족이 있었다. 그 말에 섬뜩하고 끔찍한 4·3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3은 마치 운명 과도 같았다고 해야 할까. 4·3 광풍이 휘몰아치자 속절없이 가족을 잃은 이들은 살아남으니깐 어쩔 수 없이 살아간 것

이다. 특히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곳 대부분에서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저 관광지로만 기억됐다. 그사이 4·3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묻혔다.

취재 중에 만난 일흔여섯 살의 오순명 씨. 오 씨의 아버지는 4·3 당시 정방폭포에서 희생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도 총살됐다. 오 씨는 4·3으로 고아가 된, 4·3 학살 고아였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폭도 새끼’라는 놀림도 받았다. 부모님도 억울하게 잃었는데, 어린 오 씨에게 4·3은 그만큼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다. 어렵사리 교육대학에 입학했지만, 선생님이 되는 것도 힘들었다. 연좌제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씨는 오랫동안 4·3은 물론 정방폭포는 생각도 하기 싫었다. 그러다 최근 오 씨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정방폭포를 우연히 갔다가 4·3과 관련 기록이 있을까봐 찾아봤더니 어떤 기록도 없었던 것이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정방폭포는 그저 화려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관광지로만 기억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희생된 자리엔 제주도가 중국 국교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서북전시관이 들어서 있었다.

오 씨는 취재 내내 “이게 우리나라가 4·3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며 분개했다. 오 씨의 아버지를 비롯해 도민 이백여 명이 희생됐지만, 기념비는커녕 관련 기록이 하나도 없는 사실에 화난 것이다. 오 씨는 현재 정방폭포 유족회를 만들어 기억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정방폭포 인근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될지 미지수다.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 마음대로 기념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씨는 죽기 전에 꼭 아버지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후손들이 이곳에서 벌어진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오 씨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다. 왜 나라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유족이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데 위로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은 4·3이 국가 폭력으로 인정돼서 대통령 사과도 이뤄졌는데 말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백사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일흔아홉 살 김평우 씨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 김 씨의 아버지는 4·3 당시 인근 토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군경에게 잡힌 산사람이 마을 청년 이름을 적어놓은 메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백사장에서 희생됐다. 이 산사람은 토산리 청년들을 포섭하려고 명단을 적어놓은 것인데, 군경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청년들을 백사장으로 끌고 가 총살해 물어버렸다. 지금 그 위로 표선 민속촌이 들어서 있다. 김 씨는 아버지를 잃은 뒤로 오 씨처럼 마찬가지로 고아가 됐다. 어머니는 4·3 광풍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김 씨 역시 희생될 뻔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김 씨는 그 이후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했다. 살기 위해 학업도 포기하고 일만 했다. 김 씨는 “차라리 그때 함께 죽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가족의 유해를 여태 수습을 못한 유족도 있다. 여든세 살의 강창옥 씨다. 강 씨의 부모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유월 이십사일 밤사이 예비검속으로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갔다. 아버지는 그해 칠월 제주 앞바다에 수장됐고, 어머니는 당시 정뜨르비행장으로 불렸던 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총살돼 묻혔다. 지

금도 활주로 어딘가에 어머니 유해가 묻혀 있다. 강 씨의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해가 오백여 구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4·3 이후 공항이 들어서며 보안구역이 됐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됐다. 이 때문에 지금껏 수습을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일 분 삼십 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강 씨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어머니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현재 제주공항에 많은 관광객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했다. 공항 어디에도 4·3 기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강 씨의 한이 깊어질수록 공항은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 활주로를 확장하고,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 하나를 더 지으려고 한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공항 건설 예산에 비해 유해 발굴 사업은 얼마 들지 않을 텐데. 특히 지금껏 세 차례에 걸쳐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형식적인 발굴 작업이었다. 주 활주로인 동서 활주로 주변에 유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 공항 운영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잘 활용하지 않는 남북 활주로 위주로만 유해 발굴이 이뤄진 것이다. 강 씨는 함께 제주공항



제주 4·3 당시 수백 명이 희생된 서귀포시 정방폭포

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을 했다. “국가가 우리 부모를 죽였는데, 왜 현재까지 우리 어머니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는가. 이게 나라인가. 죽기 전에 꼭 차디찬 땅속에 있는 어머니 유해를 수습해 제대로 묻어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싶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다.”

이번 4·3 기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학살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하나다. 4·3 사건에 대해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은 학살 터에 위령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곳에 과거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주요 관광지가 대부분 학살 터인데, 기념비 하나 없는 곳이 태반이다.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떠들면서 4·3 추념식이 열리는 날이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까지 가서 추모행사를 열고 있는데, 정작 학살 터를 방치하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해마다 이곳을 찾는 만큼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까지도 수습 못한 유해가 수천여 구에 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학살에 대해 사과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이 유족의 한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다. 유해를 수습 못한 채 한 맺힌 삶을 사는 유족들이 많은데 국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해왔다.

얼마 전 아버지와 4·3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내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다. 이전까지는 4·3에 대해 제대로 얘기 나누는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4·3으로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다”며 “앞으로 좋은 기사로 4·3에 대한 기사를 써 달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4·3 기획 연재가 끝나지 않았다. 이 기획이 끝이 아니라 4·3이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계속해서 4·3 기사를 써나갈 것이다. 📖